

I

경영환경

- 2021년 4/4분기 세계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,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 흐름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
 -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 증가폭은 2021년 2/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고, 세계 경기선 행지수는 2021년 4/4분기 하락세로 전환됨
- 2021년 4/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며 전년 동기 대비 4.2% 성장하였고, 2022년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된다면 연간 2.8~3.0%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
 - 2021년 4/4분기 민간소비는 2010년 2/4분기 이후 최고치인 6.3%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,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2021년 3/4분기와 비슷한 수준임
 -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.0%, 2.7%로 전망함
-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 기준금리를 1.25%에서 1.50%로 0.25%p 인상함
 - 국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보임
-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
 -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3.22%, 3.35%로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, 장단기 스프레드는 물가상승 압력,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축소됨
- 2021년 연간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, 보험 및 연금, 채권 거래금액은 감소한 반면, 국내외 주식과 투자펀드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
 - 2021년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2020년에 기록한 역대 최저치 20.1%에서 1.0%p 상승한 21.1%로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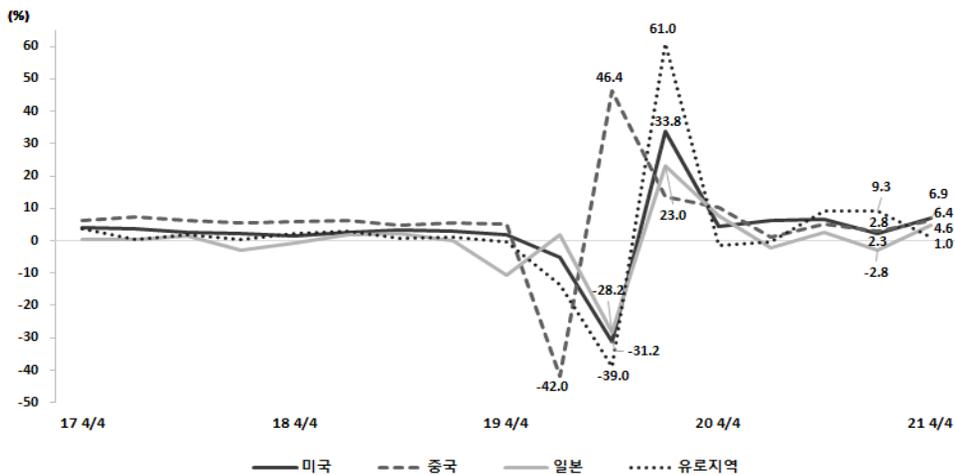
1. 경제

가. 세계경제

○ 2021년 4/4분기 세계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냄

- 2021년 4/4분기 미국 경제는 개인소비지출이 3/4분기보다 3.3% 증가함과 동시에 수출, 재고투자, 비거주 고정자산투자가 확대되며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6.9% 성장률을 보임¹⁾
- 중국 경제는 4/4분기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었으나, 제조업 및 수출 지표가 3/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3.6%p 상승한 6.4% 성장률을 기록함²⁾
- 일본은 3/4분기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했으나, 4/4분기 가계 소비 및 수출 증가 효과가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4.6% 성장함³⁾
- 유로지역은 4/4분기 정부지출 및 고정자본형성 등은 증가하였으나, 가계 소비지출이 줄어⁴⁾ 전분기 대비 8.3%p 감소한 1.0% 성장에 그침

〈그림 1〉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주: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, 계절조정임

자료: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2. 3); 중국 국가통계국(2022. 1); 일본 내각부(2022. 3); Eurostat(2022. 3)

1)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2. 3), "Gross Domestic Product (Third Estimate), Corporate Profits, and GDP by Industry, Fourth Quarter and Year 2021"; Reuters(2022. 1), "U.S. economy likely regained steam in Q4, 2021 growth seen best in 37 years"

2) BNP PARIBAS Economic Research(2022. 1), "Eco Emerging 1st quarter 2022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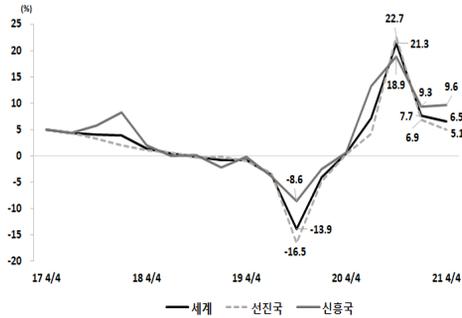
3) OECD(2022. 2), "OECD GDP growth continues steadi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1, but slows in Europe"

4) Eurostat(2022. 3), "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1"

○ 2021년 4/4분기 세계 무역 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.5%, 4.6%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2/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

-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 규모 증가율은 각각 5.1%, 9.6%였으며,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.4% 증가하였고,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.8%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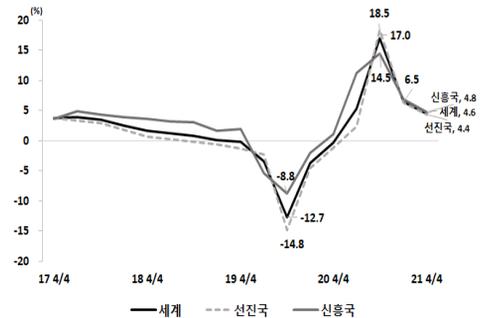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(2022. 3)

〈그림 3〉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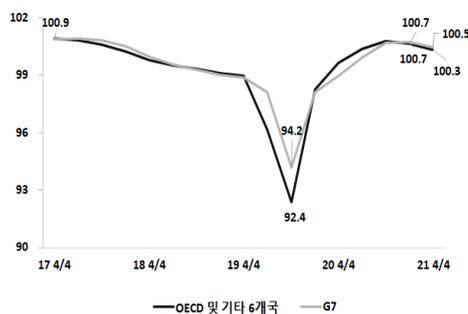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(2022. 3)

○ 2021년 4/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⁵⁾는 3/4분기 대비 0.4p 하락한 100.3을 기록하였고,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도 모두 하락함

- G7의 경기선행지수는 100.5로 지난 5분기 연속 상승 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국, 일본, 유로지역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.3p, 0.1p, 0.2p 하락한 100.1, 100.6, 101을 기록하였으며,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99.5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짐

〈그림 4〉 세계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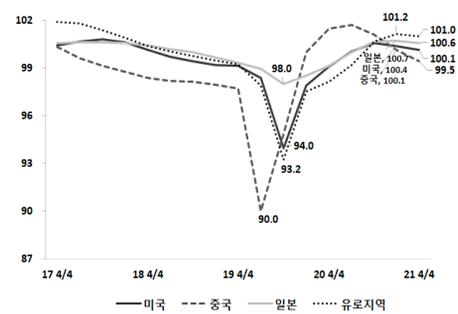


주: 1)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
2) 기타 6개국은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임

자료: OECD

〈그림 5〉 주요국 경기선행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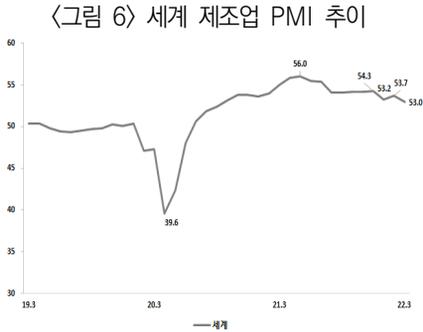
주: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
자료: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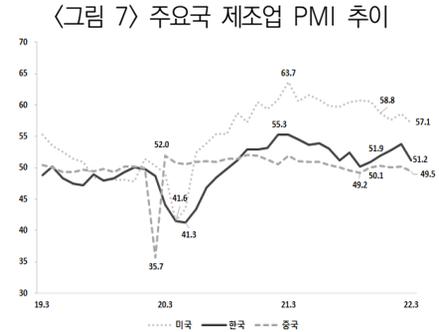
5)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,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

○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⁶⁾는 2021년 7월 최고치인 56.0에 도달 후 점차 하락하여 2022년 3월 53.0 수준에 머물러 있음

- 2022년 3월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지난해 12월 대비 각각 1.7p, 0.7p 하락한 57.1, 51.2를 기록하였으며, 중국 제조업 PMI는 49.5로 5개월 만에 다시 50선을 하회함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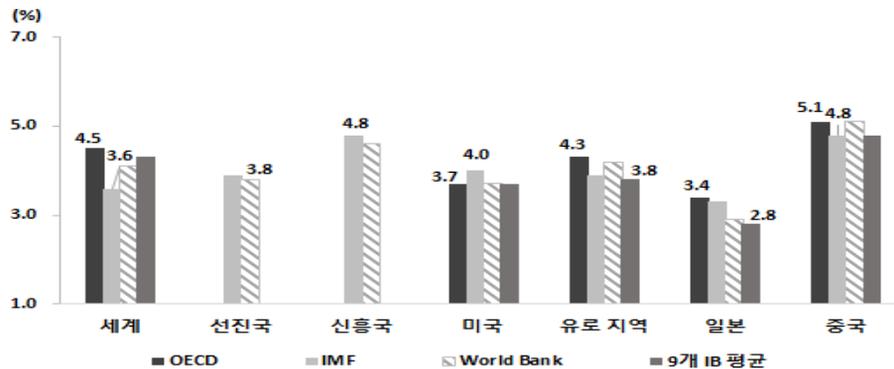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○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초래할 인플레이션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최저 3.6%에서 최고 4.5%로 전망함

- IMF는 2022년 4월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각국 긴축정책과 중국의 성장둔화 등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2022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0.8%p 하향 조정함⁷⁾

〈그림 8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주: 9개 IB: Barclays, BoA-ML, Citi, BnP Paribas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Societe Generale, UBS
 자료: IMF(2022. 4); OECD(2021. 12); World Bank(2022. 1); 9개 IB 평균(2021. 12)

6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는 생산, 신규주문, 수출주문, 취업, 부품구매, 주문잔고, 납품업체 배송,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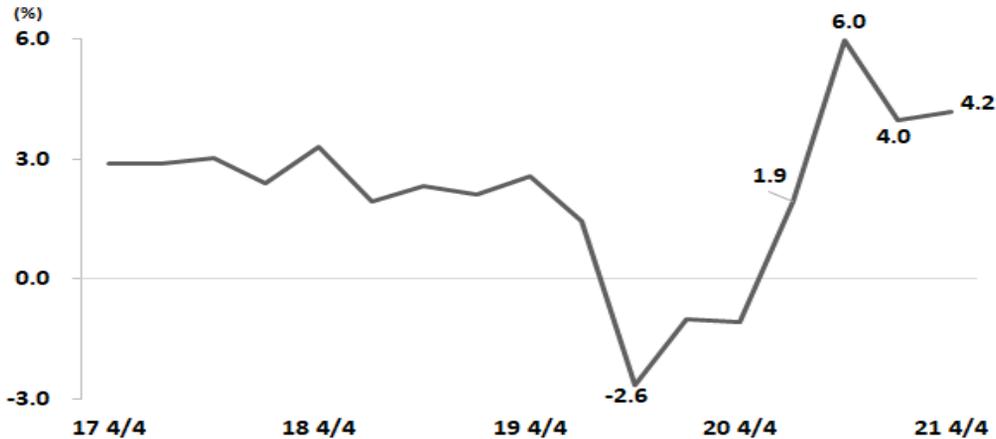
7) IMF(2022. 4), "World Economic Outlook"

나. 국내경제

○ 2021년 4/4분기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며 전년 동기 대비 4.2% 성장함

- 2021년 4/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2/4분기 이후 최고치인 6.3%를 기록함
 - 소매판매는 4/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.4% 증가하였고, 2021년 연간 평균 6%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함
 -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3/4분기 소폭 하락하였으나, 4/4분기 다시 상승하여 106을 기록하며 소비심리 회복 흐름을 이어감
-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는 3/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였고,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함⁸⁾
 - 설비투자와 지식생산물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.1%, 3.9% 확대된 반면,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.7% 감소하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
 - 기계수주는 민간과 공공 수주가 모두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.8%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고, 건설수주는 10월 증가했으나 12월 큰 폭 줄어 4/4분기 종합 2.2% 감소함
-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.8% 증가하였고,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.2%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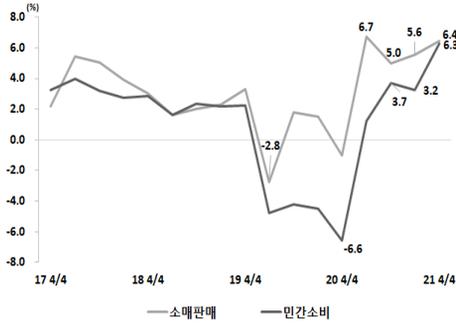
〈그림 9〉 국내 경제성장률



주: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 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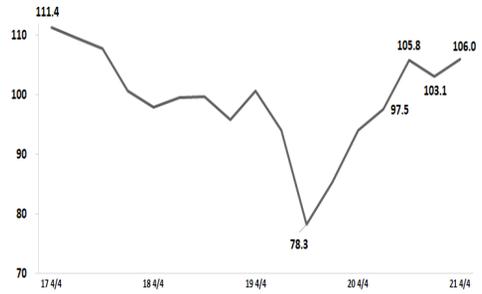
8)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11), “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12), “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2. 1), “2021년 12월 산업활동동향”

〈그림 10〉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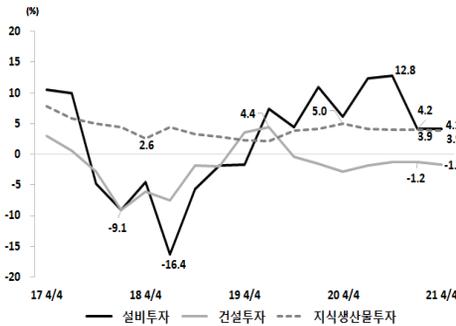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〈그림 11〉 소비자심리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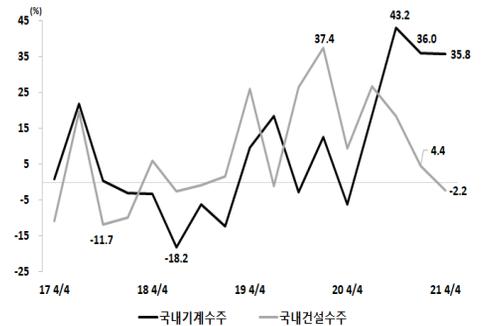
주: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2〉 설비투자, 건설투자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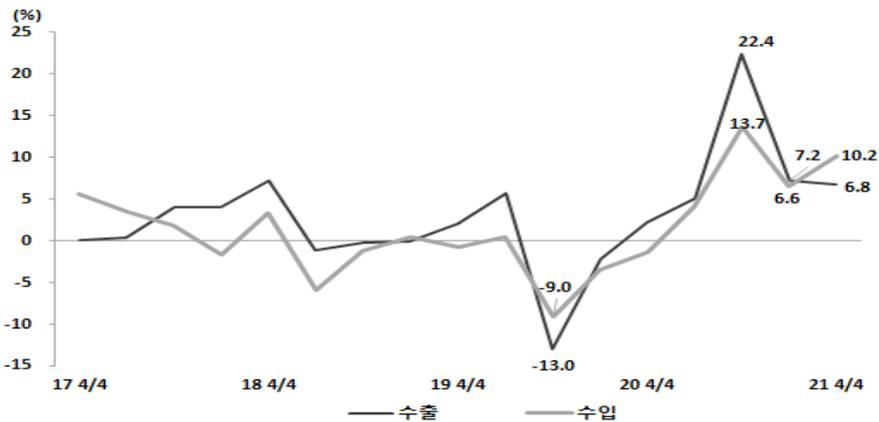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3〉 기계수주, 건설수주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14〉 수출입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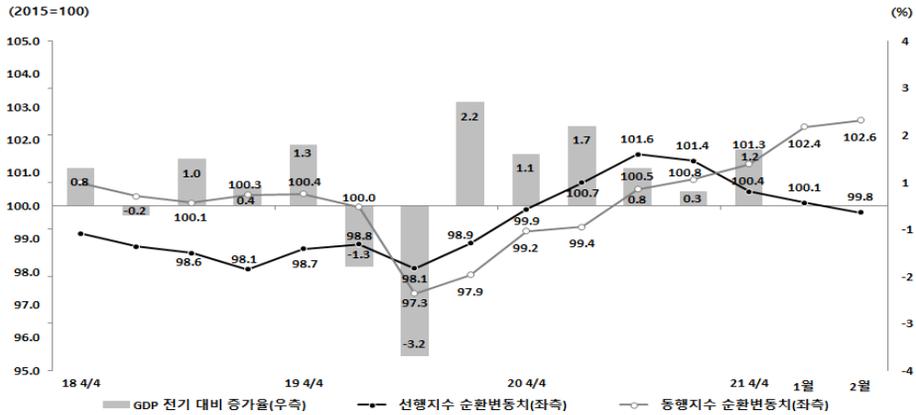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○ 2021년 4/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/4분기 대비 1.0p 하락한 100.4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.5p 상승한 101.3을 기록함

- 2022년 2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(99.8)는 2021년 2/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속되며 100 아래로 하락한 반면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(102.6)는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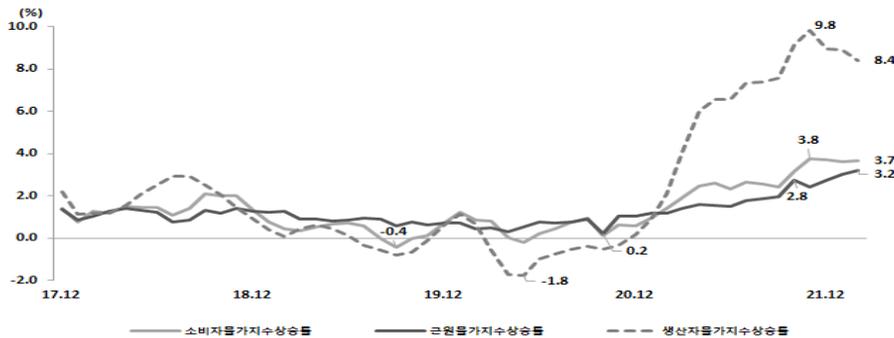
〈그림 15〉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



주: 2022년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
 자료: 한국은행; 통계청

○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3.8%를 기록 후 2022년 2월까지 3.7%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, 2021년 4/4분기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국제유가 상승 지속, 연말 성수기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침⁹⁾

〈그림 16〉 물가상승률



주: 1)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
 2)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
 자료: 한국은행

9) 기획재정부(2021. 11; 2021. 12; 2022. 1), 「최근경제동향」

○ 국내외 주요 기관은 국내 방역조치 완화 기조와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가 지속된다면 2022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

- 한국은행과 KDI는 2022년 투자 및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,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을 예상하여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각각 3.0%, 2.8%로 전망함
-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⁰⁾은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2.0%(Nomura)에서 최고 3.2%(Credit Suisse, JP Morgan), 평균 2.7%로 전망함

〈표 1〉 국내 주요 기관 전망

(단위: %, 억 달러)

구분	2020	2021	2022(F) ¹⁾		2023(F) ¹⁾	
			한국은행 ²⁾	KDI ³⁾	한국은행 ²⁾	KDI ³⁾
실질 GDP	-0.9	4.0	3.0	2.8	2.5	2.3
민간소비	-5.0	3.6	3.5	3.7	2.6	3.9
설비투자	7.1	8.3	2.2	-4.0	1.7	2.4
건설투자	-0.4	-1.5	2.4	-1.3	2.3	2.3
지식생산물투자	4.0	3.9	3.9	4.6	3.8	3.4
상품수출	-0.5	9.8	3.4	4.3	2.2	2.5
상품수입	-0.1	11.9	3.8	4.2	2.3	2.8
실업률	4.0	3.7	3.6	3.1	3.7	3.3
소비자물가	0.5	2.5	3.1	4.2	2.0	2.2
경상수지	759	883	700	516	680	602
상품수지	806	762	680	442	750	650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수지	-47	121	20	74	-70	-48

주: 1) 전망치임

2) 한국은행(2022. 2), 『경제전망보고서』

3) KDI(2022. 5), 『KDI경제전망』

자료: 한국은행, KD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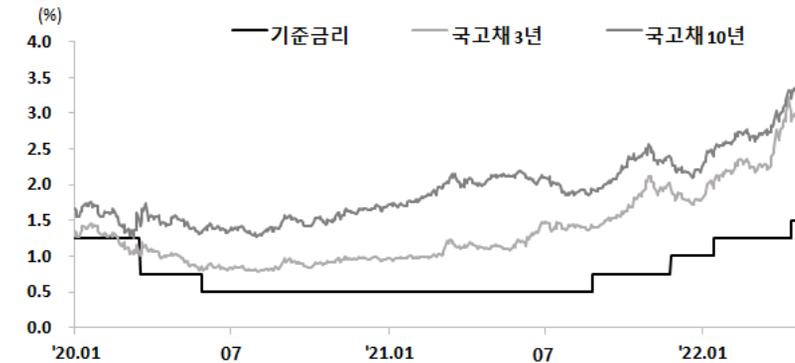
10) 9개 IB(Barclays, BoA-ML, Citi, Goldman Sachs, J.P.Morgan, Nomura, Credit Suisse, HSBC, UBS), 2022년 4월 말 기준임

2. 금융

가. 금리

-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됨에 따라 4월 14일 기준금리를 1.25%에서 1.50%로 0.25%p 인상함¹¹⁾
 - 한국은행은 국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며,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냄
 -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,¹²⁾ 국내 추경 편성 부담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며 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
 - 2022년 4월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3.22%, 3.35%를 기록함

〈그림 17〉 기준금리, 장단기 국고채 금리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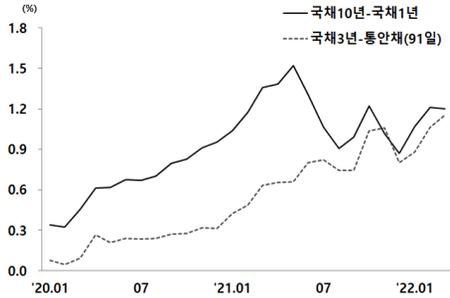
-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으며, 신정부의 2차 추경 추진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등의 우려로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
 -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-3년물)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,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2월 44.0bp에서 4월 10.1bp까지 축소됨
 - 신용 스프레드(회사채AA-, 국고채 3년물)는 국채발행 확대 및 2차 추경¹³⁾ 등의 수급 이슈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어 1월 57.2bp에서 3월 65.9bp로 확대됨

11)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2. 4. 14), “통화정책방향”

12) 한국은행 보도자료(2022. 3. 10), “2022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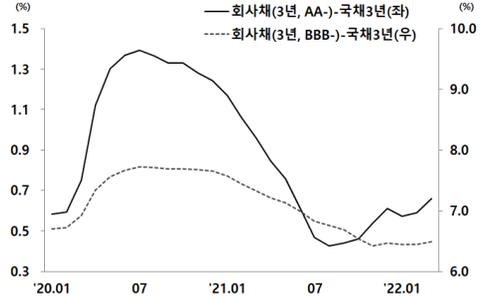
13)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함(우리금융경영연구소 (2022. 4), 『금융시장 브리프』)

〈그림 18〉 장단기 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9〉 신용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○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(Fed)의 기준금리 인상과 강력한 통화 긴축 스탠스 등으로 인해 단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

- 2022년 2월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1월 말 1.78%에서 2.04%로 상승함
 -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7.8%로 40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
- 미 연준은 2022년 3월 17일 기준금리를 0.25%~0.50%로 0.25%p 상향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년 6회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으며, 이로 인해 장단기(10년물-2년물)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함
 - 2022년 4월 1일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-2년물)는 -7.4bp로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됨

○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2/4분기 한국의 3년물, 10년물 국고채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모두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

- 2022년 2/4분기 한국 3년물,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2.90%, 2.99%로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0.51%p, 1.00%p 상향 조정하였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2.64%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.79%p 상향 조정함

〈표 2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

(단위: %)

미국 국고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고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고채(3년) 금리		
'22. 2Q	3Q	4Q	'22. 2Q	3Q	4Q	'22. 2Q	3Q	4Q
2.64	2.71	2.76	2.99	2.99	2.94	2.90	2.82	2.78

주: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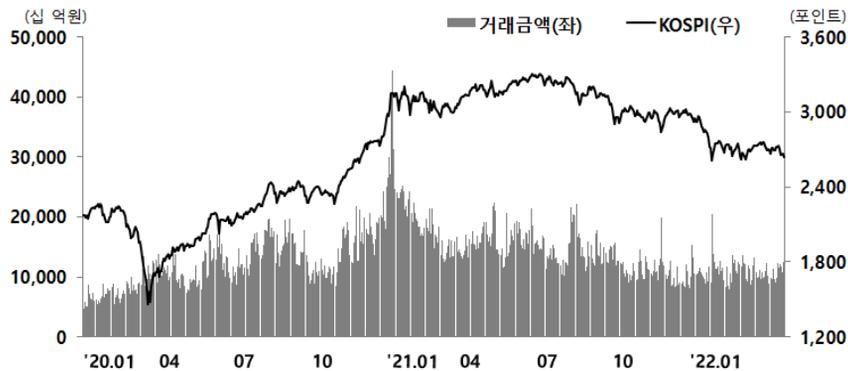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나. 주가 및 환율

○ 코스피(KOSPI)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 등의 영향이 혼재하며 2,000포인트 후반에서 등락을 나타냄

- 2022년 2월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으나 1월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확대 등의 영향으로 1월 말 2,663포인트에서 2월 2,772포인트로 상승함
- 이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건조한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, 시중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, 2,630~2,761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함

〈그림 20〉 주가지수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

○ 원/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기축 스탠스 강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상승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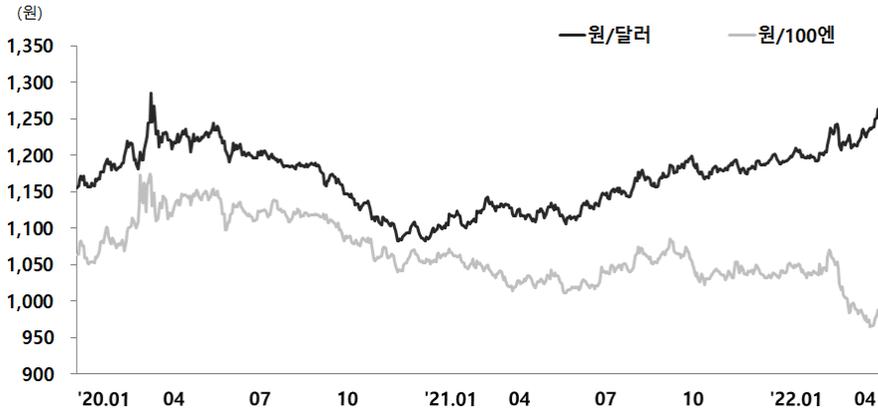
- 2022년 2월 원/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기조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개입 의지가 반영되며 제한된 상승세를 보임
 - 원/달러 환율은 1,100원 후반과 1,200원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보임
- 이후 국내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따른 유가,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,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은 3월 초 1,200원에서 4월 말 1,263원으로 상승함

○ 원/엔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고 일본 중앙은행(BOJ)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스탠스를 고수함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됨

- 원/엔 환율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었으나 엔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 약화로 상승세가 제한되며, 2월 말 1,041원을 기록함

- 3월 미 연준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미·일간 금리차 확대,¹⁴⁾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/엔 환율은 3년 만에 1,000원 아래로 하락함
 - 4월 말 원/엔 환율은 966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

〈그림 21〉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-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2/4분기 원/달러와 엔/달러 환율이 전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, 달러/유로 환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
 - 원/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
〈표 3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

(단위: 원, 엔, 달러)

구분	원/달러		엔/달러		달러/유로	
	'22. 1Q	2Q	'22. 1Q	2Q	'22. 1Q	2Q
Wells Fargo	1,212	1,260	122	128	1.11	1.06
Mizuho Bank		1,280		131		1.07
Morgan Stanley		1,250		120		1.08
BNP Paribas		1,235		125		1.11

주: 2022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5월 초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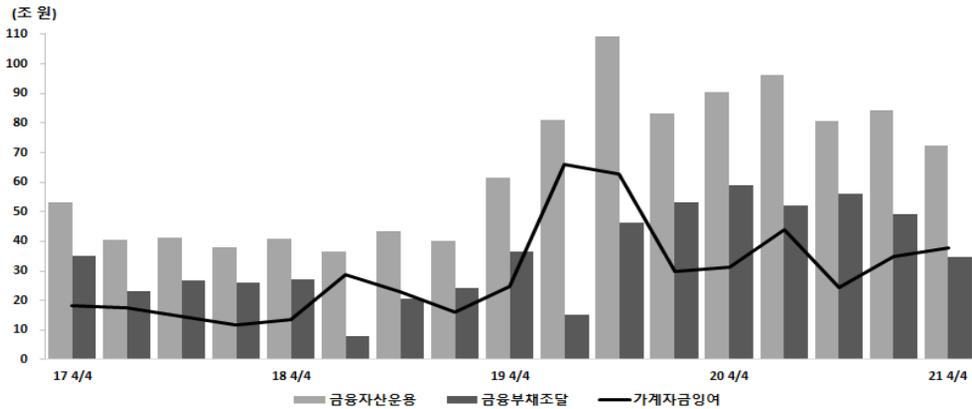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14) 미·일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: 21년 12월 30일 143bp → 22년 3월 27일 223bp(20년 2월 이후 최대)

3. 자금흐름

- 2021년 4/4분기 가계부문¹⁵⁾ 자금잉여¹⁶⁾는 전분기 대비 2.8조 원 증가하여 37.8조 원 발생함
 - 금융부채조달과 금융자산운용 모두 전기 대비 감소하여 각각 34.7조 원, 72.5조 원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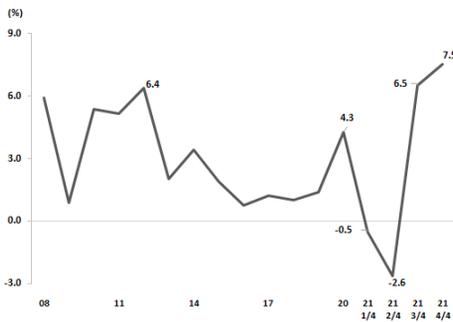
〈그림 22〉 가계자금잉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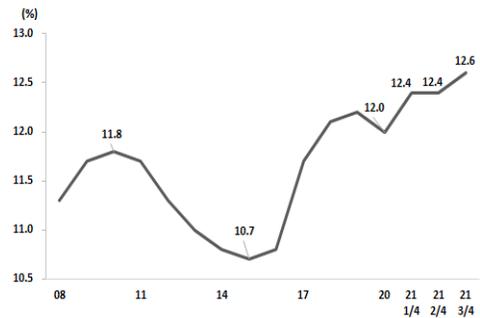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- 2021년 4/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.5% 늘어나며 3/4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, 3/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12.6%로 상승세를 지속함

〈그림 23〉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



〈그림 24〉 DSR



- 주: 1)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 2) 2020년 이후 증가율은 '2인 이상 가구'(농림어가 포함)에서 '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'로 변경, 발표된 수치임

자료: BIS

자료: 통계청

15) 가계(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)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
 16)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,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

- 가계부문 금융상품거래는 2020년 최대치 기록 후 2021년 소폭 감소하였으며, 현금 및 예금, 보험 및 연금, 채권 거래금액은 감소한 반면, 국내외 주식과 투자펀드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
 - 2021년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2020년에 기록한 최저치 20.1%에서 소폭 상승한 21.1%로 전년도에 이어 낮은 수준을 지속함

〈표 4〉 가계 금융상품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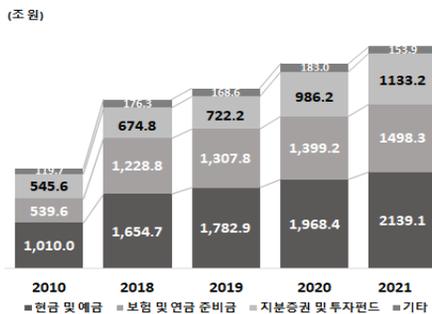
(단위: 조 원, %)

구분	현금 및 예금	보험 및 연금		채권	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	비거주자 발행주식	투자펀드	기타	합계
2018	75.3	60.7	(37.8)	0.0	21.8	1.7	0.0	1.2	160.7
2019	130.7	72.0	(39.6)	-17.3	-7.9	2.1	2.0	0.0	181.6
2020	189.9	73.0	(20.1)	10.2	62.2	20.6	-6.6	14.5	363.8
2021	172.0	70.2	(21.1)	-31.8	87.6	22.9	4.9	7.5	333.3
2021 1/4	41.9	13.8	(14.4)	-11.8	36.5	12.5	2.6	0.6	96.1
2021 2/4	36.3	13.0	(16.1)	-5.1	29.2	2.8	1.0	3.3	80.5
2021 3/4	42.1	12.2	(14.5)	0.7	26.1	2.4	-1.4	2.1	84.2
2021 4/4	51.7	31.2	(43.0)	-15.6	-4.1	5.2	2.8	1.3	72.5

주: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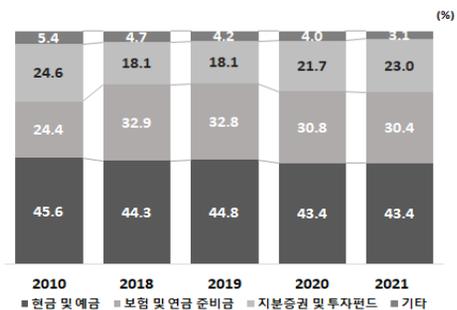
- 2021년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 비중은 2020년보다 0.4%p 하락한 30.4%를 차지함
 - 2021년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2020년과 동일한 43.4%이고, 자본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전년도보다 1.3%p 증가한 23.0%임

〈그림 25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금액)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26〉 가계금융자산 구성(비중)



자료: 한국은행

4. 규제·제도

-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·시행(2022. 4. 1)(2022. 3. 28 금융감독원)
 -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,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함

-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 (2022. 2. 24 금융위원회)
 - 新지급여력제도(K-ICS) 도입(2023년)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「자산·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」로 개편될 예정임
 - K-ICS 도입 시 기존 RBC 대비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고, 리스크 신뢰수준도 99.0%에서 99.5%로 상향 조정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 방안으로 「K-ICS 경과조치」를 마련하고, 경과조치 적용기간(최대 10년)도 충분히 부여하기로 함
 - K-ICS 비율은 가용자본/요구자본으로 K-ICS 경과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기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, 책임준비금 증가분이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,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것은 신규 보험위험 및 기존위험 증가효과의 점진적 인식임
 -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분기 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관련 감독규정·시행세칙 변경예고를 할 예정임

-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(2022. 2. 21 금융위원회)
 -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 및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「2022년 자금세탁방지교육정책방향」을 마련함
 - 보험업권과 관련하여서는 의심거래 참고유형 및 의심거래보고(STR) 작성기법 등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책자를 2022년 2분기 중 작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며, 민간교육기관의 STR 과정을 보다 실무·사례 위주로 개편하고, 전문 강사지원과 방문교육·간담회 개최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임

-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및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(2022. 2. 16 금융위원회)
 - 혁신금융서비스 중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체보험 제공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업성 보험 가입 시에 대면계약 절차 대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의 기간을 2024년 2월 18일까지 연장함